

이윤행 함평군수, 오로지 '군민 행복시대' 전력

이윤행 함평군수가 출범 2년차를 맞아 "2019년을 군민 행복시대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윤행 군수는 2일 시무식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침체된 지역경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방점을 찍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국비 875억여 원, 도비 17억여 원 등 총 892억여 원에 달하는 국·도비를 확보하는가 하면, 4만 5천대 가량의 렌터카 등록 업무 협약체결, 함평읍 시가지 공영 주차장 준공,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원스톱 민원 처리서비스 시행, 농어가수당 지급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착수 등 행정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서남해안 경제 중심 함평 도약
이 군수는 "새로 시작되는 기동년 새해는 민선 7기 군정이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출항하는 첫 해"라며, "지난 해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에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까지 잘 마무리 군민이 돈 버는 함평, 서

규모의 근로자 전용 민자주택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컨트롤타워 운영
또한 "일자리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청년, 노인, 주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기업 교육지원으로 교류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함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계절 찾고 싶은 함평' 건설
"2022년 함평나비엑스포로 격상
"2020년 함평천지드림 빛 축제 개최
특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 자리매김한 함평나비축제를 오는 2022년에 함평나비엑스포로 격상시키고, 2020년에는 함평천지드림 빛 축제를 개최하겠다"며, "영광 칠산대교부터 함평 돌머리까지 약 20여km에 이르는 해안일주도로를 건설하고 용천사에서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사이클로드 및 가로수길 조성, 해수찜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례로 추진해 '사계절 찾고 싶은 함평'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건강보진소' 운영
이 군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함평을 막아서는 역풍은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우리를 도와주는 순풍은 발전의 속도를 내는 기회로 삼으며,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수립해 놓은 비전과 새로운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평군수 이윤행-



민선 7기 서남권 경제 중심 도약 동함평산단·해보농공단지 조기착공 독려 빛그린국가산단, 자동차 생산라인 유치

2022년 함평나비엑스포로 격상 2020년 함평천지 드림 빛 축제 개최 '찾아가는 건강보진소' 및 경로당 정비

남해안 경제 중심 함평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동함평산단·해보농공단지 조기착공 독려
이 군수는 "높은 분양율에 비해 50%대의 저조한 실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동함평산단과 해보농공단지 등에 조기착공 독려와 양도·양수 유도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빛그린산단, 자동차 생산라인 유치
이 군수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오는 2022년까지 월야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완공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동차 생산라인 유치, 월야면 읍 승격, 1만호

고령인구가 많은 군 실정에 맞게 '찾아가는 건강보진소'를 운영하며 일반진료, 치과진료 등 각종 검사는 물론, 이·미용, 농기계 수리, 수도·전기 점검에 이르는 통합복지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로당 확충·정비
이어 "마을 경로당 확충·정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노후 건강기구 교체, 다채로운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함평영재교육원 건립
이 군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자양분이 될 인재양성기금을 2024년에 75억 원, 2030년에 1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함평영재교육원 및 외국어체험센터 건



립을 통해 지역 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역사자료관 설립
특히, "군민 모두가 족자를 관두세우고 있는 '교육역사박물관' 유치도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평역사자료관 설립은 군립도서관 내 공충생태체험장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 탁상·탄신행영 아운
이윤행 군수는 "우리 함평은 고요한 듯 숨가쁘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며, "올 한해도 결단 번지르르한 전시행정,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적기에 제공하는 군정으로 군민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군민을 우선하는



'참여 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소외 없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기술로 승부하는 '고품질 1차 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산업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체류형 관광 구축으로 군민이 '돈 버는 관광 함평'을 실현하겠으며, 우리 함평을 의지인도 찾아오는 '명품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함평-임재삼 대표기자
정리-이민행 대표기자

